

新聞社說評價

Content Survey on Editorials of Korean Newspapers

東亞·朝鮮·韓國·三大紙의 1961年1月~5月15日, 1963年1
月15日 兩期間中 社說의 比較評價

共同調査	金元基	元	基
	李鉉	鉉	爽
	李大勳	大	勳
	韓昌燮	昌	燮

現代生活의 特徵의 하나는 우리들의 生活에서 「매스·미디어」가 차지하는 比重이 압도적으로 增加한데 있다. 「부력키」는 일찌기 「매스·컴유니케이션」이 現代生活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묘사하는 가운데 『오늘날 人間이 適應하고 있는 환경은 여섯 大陸과 20億의 人口를 포함하는 眞實의 世界 그 自體가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機能에 依하여 複寫된 世界라고 갈파했다.

言論이 現代社會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共產主義體制나 民主主義體制 或은 專制體制를 莫論하고 제 각기의 立場에서 重要하지만 特別히 輿論政治를 표방하는 民主主義體制下에서는 그 중요성이 압도적인 것으로서 美國의 大評論家 「윌터·리프먼」 같은 이는 이를 강조하여 『新聞은 民主主義의 聖書』라고 까지 概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스·콤」의 영향력은 特別히 民主主義가 연천한 後進社會에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서, 이는 그 社會가 지닌 輿論의 低開發性때문에 新聞이 輿論 그 自體를 代置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社會에서는 그 어느곳보다 言論의 指導의 使命이 중차대하여 健全한 言論의 發見與否는 社會의 死活에 直結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韓國의 言論은 許多한 歷史의 시련과 社會的 制約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 「매스·미디어」는 社會의 方向을 指示하고 國家의 運

命을 가름하는데 가장 「다이내믹」한 하나의 要素가 되고 있다. 오늘날 韓國社會는 新聞과 함께 기뻐하고, 新聞과 더불어 분개하고, 新聞에 따라 생각하며, 거의 그 判斷의 7.8할을 新聞에 依存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形便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런던 타임즈 한장은 주키지메스의 歷史作品 全部보다 더 有益하다』고 한 「리처드·코브덴」의 말이 그대로 適中할수도 있으며, 반면 言論이 그 良識을 잃고 商業의 利潤이나 派黨心에만 汲급하여 公器로써의 分을 저바릴때는 이야말로 社會的 無秩序와 混沌을 재촉하는 가장 가공할 존재로 전략 할수도 있는 것이다. 韓國의 言論界가 처한 現位置야말로 이 民族의 갈길을 指針하는 重大한 時機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時點에선 韓國言論界가 과거 4.19와 5.16 軍事革命等 民族의 危機를 겪는 동안 어떻게 行動했으며 어떤 方向을 民族에게 提示했던가?

新聞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社說面을 통하여 그간의 족적을 살펴보고, 이를 評價하는 것은 意味있는 일로 생각하여 調査에 着手했다.

調査者들은 처음 그저 캐어보고 싶다는 初學者로서의 소박한 意欲만을 가지고 주저없이 일에 着手는 했으나, 막상 作業의 進行에 따라 우리들의 作業分量이 우리의 力量에 너무 惝越되었으므로 특히 調査節次와 操作에

關한 理解와 經驗의 부족을 통감했으나, 다만 다음단계의 研究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감히 일의 진행이 초라한 것을 내어 놓는다.

(一) 目的

本分析은 韓國의 新聞들이 5.16 前後를 比較할때에 對政府批判態度나 기타 主題選擇에 있어서까지 현저한 差異를 보일것이라는 가정하에, 5.16 前 5개월간, 5.16 後 5個月間의 主要中央日刊紙의 社說을 調査分析比較해봄으로써 韓國新聞에 나타난 價値觀, 新聞의 誠實性, 勇氣를 測定하고, 韓國新聞에 대한 一般三者의 評價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의 興否를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二) 假說

上記한 目的을 가지고 시작한 本調査分析을 이를 具體的으로 檢證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假說을 세워보았다.

(a) 後進國的인 政治過剩現象은 社說面에도 나타나, 그 主題역시 대부분 政治에 관한 것이 壓倒的인 것이며,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生活苦經濟難의 反映으로서 經濟에 관한 것이 많을 것이다.

(b) 韓國新聞社說의 呼訴對象역시 대부분 政府·政治人에 向한것이 압도적일 것인데, 5.16 後는 軍事政府下에서의 制約된 條件때문에 批判의 對象이 모호한 社說이 적지 않을 것이다.

(c) 韓國新聞은 新聞本來의 使命으로 보아 5.16 前後를 莫論하고 對政府態度가 꽤 批判的일테지만, 특히 言論自由가 最大限으로 保障되었던 民主黨政權時는 反對·非難 내지 否定的인 것이 壓倒的인 것이며, 讚揚 鼓舞등 價値認定의 方向이 훨씬 적은데 비해, 5.16 後는 軍事政權下의 壓力 또는 民主黨政權때의 放縱에 대한 自己批判 분위기로인하여 無條件 否定的인 態度가 꽤 많이 是正되고 반면 5.16 前에 비해 모호한 態度 내지 「칭찬했다批判」하는 등 명확치 못한 태도가 월등히 증가할 것이다.

(d) 변함없는 韓美關係의 特殊性때문에, 5.16 前後를 莫論하고, 各新聞들은 美國에 대한 노골적인 批判을 삼가 할것이다. 그러나 新聞社說의 本來 生理가 讚揚보다는 批判에 있으므로 自

然히 各新聞의 對美 論調는 모호한 卽 ○方向이 많을 것이다. 5.16 前後를 比較하면, 5.16 以前 民主黨政權때는 4.19 革命때의 美國態度가 韓國 國民의 好感을 산것이 사실이 되었으므로 비교적 好意의일 것이며 5.16 後는 美國의 援助政策에 대한 批判의 漸高 또는 서서히 外部에 나타나기 始作한 民族主義 「무드」등으로 인하여 5.16 以前 民主黨執權時보다는 훨씬 批判的일 것이다.

(e) 民主黨政權時에서는 南北學生會談·南北間 書信交流 등이 公公연히 主張될만큼 對以 北關係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였고, 또 그 폭이 넓었으며, 無條件 排擊으로만 일관했던 自由黨 治下政策에 대한 反動으로서 꽤 柔和的인 態度까지도 있었다. 反面 軍事政權治下에서는, 軍人執權者들의 思想的 色彩에 대한 浪說이 떠도는 중에서도 오히려 對以 北關係에서는 가장 강경하여, 감히 對以 北關係가 公公연히 論議조 차될수 없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社說面에서도 5.16 以前 民主黨政權時에는 그 論及된 頻度가 5.16 後에 비하여 훨씬 높을 것이며, 또 柔和的인 方向이 많을 것이다. 이자리에서 한가지 밝혀둘 것은 對以 北關係에 관한 全幅의 支持 또는 好意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態度評價에 있어서 비교적 柔和的인 程度면 「+」方向으로 評價했음을 밝혀둔다.

(f) 對日關係는 自由黨政權, 民主黨政權 軍事政權下 모두 가장 重要한 當면 問題로 論議되어온 것이 事實이지만, 軍事政權下에서 가장 積極的으로 論議되었고 또 政府의 對日態度는 그 어느때보다도 好意的이었다. 반면 政府의 急速한 親日傾向에 대하여 一部の 疑懼心이 높았다. 따라서 新聞社說面에도 그 어느때보다도 對日問題가 빈번히 論議되었을 것이며 疑懼心에 대한 反映으로 「-」方向의 현저한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三) 接近

調査者는 上記한 6個項의 假說을 세우고 이를 檢證하기爲한 分析方法으로서, 우선 그 對象을 東亞日報·朝鮮日報·韓國日報等 三大日刊紙의 1961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 1963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의 社

說全部로 定했다. 1961年 1月에서 5月 15日까지의 期間은, 民主黨이 執權하여 어느정도 本格的인 黨策에 依한 政治가 始作된 時期이며, 1963年 1月부터 5月 15日까지의 期間역시 革命期의 非常事態를 어느 程度벗어나서 政治活動이 再開되었던 時期이기때문에, 民主黨政權과 軍事政權을 對比하는데 가장 適合한 期間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本調査는 論說態度評價의 分析單位를 「패래그랩」으로 삼았다. 여기서 한가지 밝혀둘것은, 朝鮮日報의 경우처럼 한 社說이 두세개의 「패래그랩」으로 構成되어 있을때는 他紙와의 均衡을 위하여 그 內容을 考慮하여 意味上으로 「패래그랩」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態度方向을 表示하는 부호로서는 支持·稱讚·激勵·認定·同調等을 「+」로, 非難·揶揄·警告·強懷疑心·不認定等을 「-」로, 解說·稱讚하고 批判·가벼운疑懼·要望·建議·가벼운疑心等을 「○」로 취급했다. 그런데 對美·對日·對以北關係에 있어서는, 相對方國家 卽 美國이나 日本에 害로우나 同情的이나에 따라 態度傾斜를 定했으며, 對以北關係에 있어서는 全的인 同情이나 好意는 전혀 期待할 수 없는 일이므로, 柔和的인 程度면 이를 中立 卽 「○」로 取及치않고 「+」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은 考案을 가지고 分析한 結果를 假說項目別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四) 對政府態度傾斜 Direction

「아씨·프리스페인」은 新聞論說의 역할에 對해 言及하는 가운데, 『社說筆者는 攻擊·賞讚擁護·教導를 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攻擊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대단히 必要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용이하고 또한 不愉快한 것이다』고 말하여, 社說筆者들이 攻擊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警告하였다. 그는 또한 같은 論文中에서 『善을 擁護하고 强者에 對하여 弱者를 保護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를 지키는 일은 대단히 重要한 社說의 使命인데도, 社說의 筆者들은 흔히 이를 怠慢하기 쉽다는 事實을 指摘, 新聞社說이 批判과 함께 價値認定과 價値擁護의 方向도 소홀히 말도록 主張하였다. 이는 美國의 社說筆者들간에 限한 批判이 아니라, 韓國의 論說者들

도 다시한번 음미해봄직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1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 (民主黨政權時)의 社說中 政府에 대한 批評(마이너스 方向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패래그랩」總數는, 東亞가 835個, 朝鮮이 597 韓國이 859個, 그 態度傾斜를 評價한 結果 東亞는 「+」方向 2.2%(18個)에 대해 「-」方向이 51.5%(430個) 朝鮮은 「+」方向 5.4%(32個)에 대해 一方向 46.1%(275個) 韓國은 「+」方向 2.7%(23個), 「-」方向이 48.2%(414個), 그리고 「○」(中立)方向을 보면, 東亞 46.3%(387個), 朝鮮 48.5%(290個), 韓國 49.1%(422個) —

또 1963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 (軍事政權下)의 社說을 보면, 對政府 批判을 나타낸 「패래그랩」總數는 東亞가 879個, 朝鮮이 576 韓國은 1104個, 그 態度를 評價한 結果 東亞는 「+」方向 5.9%(52個)인데비해, 一方向 25.3%(222個) 朝鮮은 「+」方向 8.2%(47個)인데비해 「-」方向 31.2%(180個), 韓國은 「+」方向 8.1%(86個)인데비해 「-」方向은 21.8%(247個), 그리고 「○」(中立)方向을보면 東亞가 68.8%, 朝鮮이 60.6%(349個), 韓國 70.1%(714個)라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계수에서 몇가지 눈에 의는 현상은 ▲民主黨政權時나 軍事政權時나 모두 「+」方向보다는 「-」方向이 壓到的으로 많다는 사실, ▲民主黨 政權時와 軍政時期를 비교하면 軍政時에는 「+」方向이 훨씬 증가한데 비해 「-」方向이 현저히 減少하고 있으며, 또 「○」방향은 軍政時期에 壓到的으로 증가하고 있다. ▲各新聞을 比較해 보면 民主黨時期에 「-」方向이 가장 많은 것은 東亞(51.5%), 다음이 韓國(48.2%) 맨끝이 朝鮮(46.1%)이며, 「+」方向이 가장 많은 것은 朝鮮의 5.4%, 그다음이 韓國(2.7%) 東亞(2.2%)의 順으로 되어있다. ▲ 또 軍政時期의 三新聞을 比較해 보면, 「-」方向이 가장 많은 것은 朝鮮의 31.2%, 다음이 東亞 25.3%, 맨끝이 韓國 21.8%이고, 「+」方向은 역시 朝鮮이 8.2%로 수위에 있으며, 다음이 韓國(8.1%), 맨끝이 東亞(5.9%), 「○」方向의 퍼센테지는 韓國이 70.1%로 首位, 다음이 東亞(68.8%) 맨

끝이 朝鮮(60.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첫째로 「-」方向이 「+」方向에 比해 壓倒的으로 많은것은 新聞의 本格的 機能인 政府의 施策을 批判·鞭撻하는데 있다고 생각할때 當然한 結果라 하겠으나, 너무도 인색한 「+」方向의 「퍼센테지」는 新聞社說의 또 하나 機能인 賞讚과 擁護의 機能에 對하여 韓國新聞이 너무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겠으며 이것은 調査者가 당초에 세웠던 假說 (C)의 一部(「韓國新聞은 批判의 일 것이라」)를 證明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또한 5.16前 民主黨時期와 軍政時를 比較하여 軍政時期에와서 「-」方向이 현저히 감소하고, 「+」方向이 增加하고 있는 것은, 어느면 「民主黨政權時에 言論이 너무 橫暴했다」는 一般의 非難을 받아들이는 言論界 스스로의 自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軍政時期의 威壓의 분위기에 言論界가 萎縮되었었다는 證據가 아닐까? —이것은 우리의 假說 (C)를 充足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軍

政時期에와서 ○方向이 三大新聞모두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中立方向으로 評價된 대부분의 「패래그랩」이 「建議」나 「賞讚하고 批判」하는 等の 積極的인 內容이 아니고 問題의 核心을 어렵게 회피하거나 모호한 態度를 나타내고 있었던점까지를 考慮할 때, 이것역시 新聞이 힘에 억눌려 그의 솔직한 意見과 態度를 드러내지 못했던 傍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民主黨政權時와 軍政下에서의 對政府態度方向을 各新聞別로 對比한다면, 民主黨政權時에 가장 政府에 對하여, 「라스웰」教授(H.D. Lasswell)의 價値剝奪의(Deprivation)인 方向이 가장 많았던것은 東亞日報, 그다음이 한국일보이며, 朝鮮日報가 比較的 同調의 이었다는 結果를 보이고 있으며, 軍政下에서 가장 批判의 이었던것은 朝鮮日報, 그다음이 東亞·韓國의 順位인데 가장 批判的인 朝鮮日報가 價値賦與(Indulgence)의 方向역시 제일 높은 數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注目할 현상이다.

Tab. 1 對 政 府 Direction

	東 亞 日 報				朝 鮮 日 報				韓 國 日 報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	18	2.2	52	5.9	32	5.4	47	8.2	23	2.7	89	8.1
-	430	51.5	222	25.3	275	46.1	180	31.2	414	48.2	241	21.8
○	387	46.3	605	68.8	290	48.5	349	60.6	422	49.1	774	70.1
計	835	100	879	100	597	100	576	100	859	100	1,104	100

(五) 카테고리(Category)

本分析은 韓國新聞의 社說들이 어떤 問題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가를 살피기위해 各社說을 主題別로 「카테고라이즈」하여 集計하여왔다. 우선 本分析의 對象이된 1961年 1月 1日 부터 5月 15日까지와, 1963年 1月 1日 부터 5月 15日까지의 各新聞의 社說總數를 보면, 1961年 1月에서 5月 15日까지 東亞가 154개, 朝鮮 246개, 한국 334개이며, 1963年 1月 1日~5月 15日까지가 東亞 175개, 朝鮮 187개, 한국~243개이다.

이들을 ▲政治, ▲經濟, ▲國際, 外交, ▲社會, ▲言論, ▲學門, 藝術, ▲娛樂, 觀光, 스포츠, ▲對以北關係, ▲核, 宇宙開發, ▲其他等 10個部門으로 分類 하여보았다. 여기서 한가지 밝혀줄것은 主題와 內容이 서로 一致하지 않을때는 內容을 보아 所屬 部門을 定했다. 이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Tab 2]

위 圖表[Tab2]를 보면 民主黨政權時나 軍政下를 莫論하고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主題는 역시 政治部門(1961年의 東亞日報경우는 例外로, 經濟 「카테고리」가 政治보다 약간 높다)으로

Tab. 2

(36) Category

	東 亞 日 報				朝 鮮 日 報				한 국 인 보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政 治	44	28.6	56	32	83	33.7	49	26.2	112	33.5	104	42.8
經 濟	54	35.1	31	17.7	46	18.7	32	17.1	86	25.7	56	23.1
國 際 外 交	16	10.4	23	13.1	60	24.4	35	18.7	43	12.9	16	6.6
社 會 論 說	22	14.3	34	19.4	35	14.2	51	27.3	42	12.6	29	12.0
學 門, 藝 術	3	1.9	3	1.7	5	2.0	6	3.2	10	3.0	9	3.7
오락, 관광, 스포츠	—	—	7	4	—	—	2	1.1	1	0.3	3	1.3
對 以 北 關 係	3	1.9	5	3.0	9	3.7	2	1.1	19	5.7	6	2.5
核, 宇 宙 開 發	—	—	1	0.6	3	1.2	4	2.1	2	0.6	—	—
其 他	12	7.8	12	6.9	4	1.7	5	2.7	11	3.3	6	2.5
計	154	100	175	100	246	100	187	100	334	100	243	100

平均 30 餘 「퍼센트」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그 다음이 經濟部門으로 17.7% 내지 35%, 셋째가 社會·國際外交·對以北關係·言論 등의 順位로 되어있다. 여기서 其他項目은 其外 9 個部門 어디에도 所屬할수 없는 것들을 망라하여 늘어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假說 (a) 「政治過剩現象과 經濟的緊迫感」이 社說面에도 그대로 反映된 것을 알 수 있겠다. 調査者들은 分析에 들어갈때 어느 一定한 카테고리는 5.16 前後를 比較하여 「퍼센테지」에 分明한 共通的 變化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막상 調査結果는 對象各新聞이 서로 相異한 變化傾向을 나타내고 있어, 통털어서 5.16 前後를 比較할수는 없게되었다. 그렇다고하여 各新聞別로 이 變化에 言及하는 것도 事實上 無意한 일임으로 이를 省略한다.

(六) 對 象

韓國新聞들의 呼訴對象은 主로 무엇인가? 이것은 韓國新聞論說의 主題가 主로 무엇인가 하는 問題와 함께 韓國新聞論說의 態度·性格 등을 규명하는데 必要할뿐아니라 5.16 軍事革命前後를 比較하면, 各新聞社說의 呼訴對象에 상당한 差異가 있으리라는 豫想下에 이문제를 調査해 보기로 했다.

우선 調査者는 豫備調査를 通하여 그 對象을 ▲政府, ▲國民, ▲政治人, ▲外國(人), ▲經濟界, ▲學生, ▲軍人, ▲官吏, ▲其他 등으로 分類하고 이중 어디에도 屬하기가 모호한, 或은 그 呼訴對象이 雜多한 경우를 想定하

여 前記 8 個項外에 ▲其他를 첨가했다.

1961 年 1 月 1 日부터 5 月 15 日까지, 또 1963 年 1 月 1 日부터 5 月 15 日까지의 論說의 呼訴對象集計를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하는 것은 3 個新聞 모두 ▲「政府」項으로서 全體社說의 약 반수 (40 퍼센트내지 58 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이 大概 ▲政治人 ▲國民 ▲外國(人) ▲經濟界 등의 項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政府」項이 유독 많은 것은 新聞의 本來 使命과 機能으로 보아 당연한 結果라 하겠으며, 위와 같은 結果는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假說(b), (韓國新聞社說의 呼訴對象역시 政府政治人에 向한것이 壓倒的일 것인데……)에 適合한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것은 이번 對象의 調査結果 5.16 前後를 比較하여 가장 뚜렷한 變化의 하나는, 5.16 前 民主黨政權時는 불과 2.8%—4.5% 線에 걸쳐 있던 「國民」項目이 5.16 軍事政權時의 社說에서는 各新聞마다 몇 배씩의 增加率을 보여, 14.7%내지 19.3%의 線으로 上昇한 것이다. 따라서 民主黨政權時는 政治人을 對象으로한 論說數가 「政府」 다음차례를 차지했는데, 5.16 後 軍事政權時는 「國民」 項이 단연 둘째자리에 올라서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調査者가 당초 豫期치 못한바지만 우리가 처음세웠던 假說(b)中 5.16 後는 軍事政府下의 恐怖분위기의 影響으로 對象이 모호한 社說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部分과 關聯이 있지 않을까? 事實 1963 年 1 月 1

日부터 5月 15日까지의 期間은 비록 政治活動이 展開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축된 社會雰圍氣는 아직 解消되지 않았고, 革命勢力(政府)과 軍人만이 社會의 積極分子였으며, 政治人이나 經濟界等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消極的인 位置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自然 新聞은 革命勢力과 政府外에는 모호하지만 廣範圍한 國民一般을 그 呼訴對象으로 흔히 擇할수 밖에 없었지않나 짐작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것은 軍政의 終息을 앞둔 重大한 時機에 臨하여, 言論界가 「은근한 鬭爭意識」을 갖고 國民의 決意와 覺醒을 자주 促求하고자한 意圖때문이 아닌가도 여겨지지만, 이에대한 確實한 解答은 좀더 科學的이고 高次的인 分析으로써만 可能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以上 더 論及할수 없을것 같다.

Tab. 3 對 象

	東 亞 日 報				朝 鮮 日 報				韓 國 日 報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政 府	89	57.9	81	46.3	128	52.0	85	44.2	132	39.5	114	46.9
國 民	5	3.2	31	17.7	7	2.8	28	14.7	15	4.5	47	19.3
政 治 人	27	17.9	22	12.6	30	12.2	21	11.1	74	22.2	31	12.8
外 國(人)	11	7.5	11	6.3	30	12.2	23	12.1	42	12.6	12	4.9
經 濟 界	4	2.5	3	1.7	2	0.7	3	1.5	13	3.9	8	3.3
學 生	1	0.6	3	1.7	3	1.2	1	0.5	11	3.3	3	1.2
軍 人	1	0.6	4	2.3	3	1.2	4	2.1	2	0.6	8	3.3
官 吏	3	1.9	2	1.1	—	—	—	—	9	2.7	1	0.4
其 他	13	8.4	18	10.3	42	17.1	25	13.2	36	10.8	19	7.8
計	154	100	175	100	246	100	190	100	334	100	243	100

(七) 對美關係

對美關係는 韓國의 政治, 經濟, 軍事, 外交文化等 全分野에 걸쳐 거의 關鍵的인 位置에 있는것이 韓國의 현실이다.

解放以後 지금까지 근 20年間, 韓國은 더 이상 바랄수 없는 깊은 유대를 美國과 가져오면서 한결같이 友好를 지켜왔으나, 國民一般의 對美感情은 모르는 사이에 新進的인 變質을 겪고 있으며, 軍事政權에 들어와서는 政府의 對美政策역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보려는 단계에 있는것 같다.

이와 같은 時點에서 對美關係에 대한 輿論의 方向을 파악 해보는 것은 앞으로 韓國의 將來를 展望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믿고 우선, 社說面에 비친 對美態度傾向의 變遷상을 보기로 했다.

1961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의 三大紙의 對美關係社說을 보면, 東亞가 모두 68個 「패 래그 램」, 朝鮮이 41個 「패 래그 램」, 韓

國이 53個 「패 래그 램」이며, 그 態度方向%를 보면 東亞가 「+」 2.9%에 「-」는 17.7%, 朝鮮은 「+」 39%에 「-」가 19.8%, 韓國은 「+」 9.4%에 「-」는 35.9%——三個新聞모두 「○」方向이 壓倒的인 率을 차지하고 있다.

또 1963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를 보면 「패 래그 램」數는 모두 1961年度보다 훨씬 줄어 東亞가 38個, 朝鮮이 18, 韓國은 25個, 對美態度는 東亞가 「+」 18.4%, 「-」 18.4%, 朝鮮 「+」 44.4%, 「-」 22.2%, 韓國은 「+」 32%, 「-」 28%로 나와있다.

위 調查結果에서 特히 눈에 띄는 현상은 5.16前 民主黨政權時는 壓倒的으로 「-」方向이 優勢, 5.16後 軍事政權下에서는 「+」方向이 훨씬 增加하여 「-」方向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5.16前 民主黨 政權時에는 한참 韓美行政協定等은 問題로 對美輿論이 꽤 날카로워졌던데도 한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그 보다는 當時 張勉政權이 對美關

係에서 너무 無力한데 대한 反撥이 이와 같이 反作用을 일으킨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는, 5.16 후 軍事政權이 對美關係에서 꽤 批判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社說面에서는 5.16 前 民主黨政權時에 比하여 「+」方向이 훨씬 증가하고 「-」方이 減少한 事實이다. 이것은 輿論은 恒常 政府의 過激한 行動을 制限하는 方向으로 움직이지 않나하는 추측을 굳혀주는 것

이다. 그 具體的인 原因이 어디 있는지는 더욱 高次的이고 精밀한 調査分析으로써만 可能하겠지만, 여하튼 新聞社說을 통해본 對美態度 傾斜는 5.16 前 民主黨政權時보다 5.16 後 軍事政權下에서 훨씬 좋아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政府의 對美態度와 서로 反對되는 方向을 取하고 있다는 것은 재미 있는 현상이다.

Tab. 4 對 美 關 係

	東 亞 日 報				朝 鮮 日 報				韓 國 日 報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	2	2.9	7	18.4	15	39	8	44.4	5	9.4	8	32
-	12	17.7	7	18.4	7	19.8	4	22.2	19	35.9	7	28
○	54	79.4	24	63.2	19	41.2	6	33.4	29	54.7	10	40
計	68	100	38	100	41	100	18	100	53	100	25	100

(八) 對以北關係

南北統一, 南北交流— 民族누구에게나 가장 絶對하고 重大한 이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대로 論議조차 된적이 없고 歷代의 政權들은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이문제를 기피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絶對한 要求는 그응색한 분위기속에서도 끊임없이 커나오고, 또 그런대로 어떤 方向을 잡아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변천해가는 輿論의 方向은 앞으로 統一의 問題를 다루는데 重大한 役割을 할것으로 믿어, 그간의 변천상을 社說面을 通하여 考察해보기로 했다.

우선 1961年度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 各社說에 나타난 對以北關「係패래그래프」數와 態度를 보면, 東亞가 「패래그래프」數 42個에 「+」方向 4.8%, 「-」方向 69%, 朝鮮은 「패래그래프」數 31個에 「+」方向 9.7%, 「-」方向 54.9% 韓國은 「패래그래프」數 34에 「+」方向 23.5%, 「-」方向 29.4%— . 또 1963年 1月 1日부터 5月 15日까지 사이 對以北關係 「패래그래프」數와 態度를 보면 東亞 「패래그래프」數 57에 「+」方向 1.8%, 「-」方向

40.4%, 朝鮮 「패래그래프」數 ○, 韓國은 「패래그래프」數 47에 「+」6.4%, 「-」方向 66%, 1라는 數字이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發見해 낼수 있는 것은 첫째 5.16 前 民主黨 政權時와 軍事政權時를 比較할 때 軍事政權下에와서 「+」方向이 훨씬 減少한 대신, 「-」方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勿論 어느때를 莫論하고 對以北關係에 關한 限 「-」方向이 「+」方向보다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民主黨政權時와 軍事政府 사이의 위와같은 현저한 차이는 우리가 앞서 假說에서 말했듯이, 無條件排擊으로만 일관했던 自由黨治下 對以北政策에 對한 反動이 張政權下의 自由와 混亂의 물결을 타고 크게 역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南北學生會談南北間書信交流, 南北會談等이 公公연히 論議되고 또 支持되었던 분위기에서 輿論을 反影하는 新聞社說에 약간 好意的인 方向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할 것이 없기도하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첨기할 것은, 우리는 당초 對以北關係 「패래그래프」數에 있어서는 5.16 前 民主黨政治下에서 훨씬 더 그 頻度가 높을 것으로 豫見했

으나, 調查結果는 그와 反對였다. 確實히 民主黨政權때에 가장 활발히 對以北關係가 論議되었는데도 오히려 論議가 위축되었던 軍事政權下에서보다 頻도가 낮은것은 무슨 理由일까? 우리가 한가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各新聞은 새로이 일어나는 위험한 風潮와 그들의 共產主義에 對한 固定觀念사이에서 確固한 自己位置를 定하지 못하고 있었기때문에 이문제에 대해 言及하는 것을 조심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解釋은 당시의 社說 論調를 보아 막연히 엇본것뿐, 하등의 科學的인 分析結果는 아님을 밝혀둔다.

또 참고로 三大新聞別로 그 態度를 高찰하

던 民主黨政權下에서건 軍政下에서건, 對以北關係에서 가장 강한 價値락탈의 方向을 보이는 것은 東亞日報이며, 한국일보는 兩期間 동안 가장 動搖가 심하다. 卽 東亞日報는 民主黨政權下에서도 「+」方向은 불과 4.8%에, 「-」方向은 69%라는 철저한 反共인데 反해, 한국일보는 「+」方向 23.5%, 「-」 29.4%라는 엇비슷한 數値이며 1963년에 들어와서야 「+」方向 64.4%에 「-」方向 66%로 壓倒的으로 「-」에 기울고 있다. 民主黨政權時 9.7%의 「+」方向과 54.9%의 「-」方向을 보여주던 朝鮮日報는 63年度에 들어와서는 전혀 對以北關係에 對한 論說이 없다는 것이 特異하다.

Tab. 5 對 以 北 關 係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일보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	2	48	1	1.8	3	9.7	—	—	8	23.5	3	6.4
-	29	69	23	40.4	17	54.9	—	—	10	29.4	31	66
○	11	26.2	33	57.8	11	35.4	—	—	16	47.1	13	27.6
計	42	100	57	100	31	100	—	—	34	100	47	100

(九) 對日關係

日本에 對한 各新聞의 態度를 보면, 東亞日報는 1961年度 1月~5月 15日까지 사이 패레그라프數 25個에 「+」方向 16%, 「-」方向 16% 이던 것이 1965年度 1月~1月 15日까지 사이에는 「패레그라프」 18個에 「+」 11.1%, 「-」方向 55.6%, 朝鮮日報는 1961年度의 같은 기간에 「패레그라프」數 16個에 「+」 25%, 「-」 17.5%, 하던 것이 1963年度 같은 기

간에는 「+」方向○, 「-」方向 33.3%, 한국일보는 1961年度에는 「+」方向 26.7%, 「-」方向 30% 하던것이 1963年度에는 「+」方向 15.8%에 「-」方向 78.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發見할 수 있는 各新聞의 共通的 현상은 軍事政權時에 와서 「+」方向은 民主黨治下보다 현저히 減少하고, 「-」方向은 월등히 增加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슨 原因에서일까?

Tab. 6 對 日 關 係

	東亞日報				朝鮮日報				한국일보			
	1961		1963		1961		1963		1961		1963	
	計	%	計	%	計	%	計	%	計	%	計	%
+	4	16	2	11.1	4	25	—	—	8	26.7	3	15.8
-	4	16	10	55.6	3	17.5	2	33.3	9	30	15	78.9
○	17	68	6	33.3	9	57.5	4	67.1	13	43.3	1	5.3
計	25	100	18	100	16	100	6	100	30	100	19	100

日本이 그간 韓日關係에 있어 決定的으로 잘못을 저지른일도 없으며, 國際政治的인 要因에 있어서도 軍政下에서 民主黨政權下에서 보다 對日感情이 惡化될만한 아무런 理由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政府의 對日態度는 그 어느 政權下에서 보다 好意的이며 積極的인 것이 사실이다. 調査者들은 社說에 反映된 對日態度의 惡化는 이러한 政府의 對日親近策에 對한 反作用의 結果로 解釋하였다. 사실 政府의 갑작스런 對日 親近策은 國民一部에 許多한 疑懼心을 일으켰으며 低姿勢外交니 經濟的侵略이니 하는 非難을 자아냈다. 이러한 一般輿論이 新聞社說에 反映된 것이 前記한 結果로 나타난것이 아닌가……

結 言

以上 우리는 韓國의 言論界가 4.19, 5.16等 거듭되는 시련을 겪는 동안, 어떤 價値觀을 갖고 어떻게 行動했으며, 또 國家的인 重要問題에 對하여 어떤 態度를 取했던가, 新聞의 自己主張인 社說란을 通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는 本分析의 結果 우리가 當初에 세웠던 假說中 (a) (後進國的인 政治過剩現象과 經濟 압박의 反映으로서 政治經濟關係의 重視) (b) (社說의 呼訴對象은 大部分 政府 政治人에 向한 것일 것이다) (c) (韓國新聞의 對政府態度는 꽤 批判的일 것이나 5.16前後를 比較하면 5.16後 軍事政權時는 民主黨執權時期에 比하여 훨씬 그 批判이 위축되었을 것이다.) (e) (民主黨執權時期는 自由黨時節의 철저한 思想統制와 억압에 對한 反撥로서 對以北態度가 꽤 柔和的일 것이다.) (f) (5.16 軍事政府의 急激한 對日接近은 輿論에 反作用을 일으켜 新聞들은 오히려 從前에 比해 훨씬 強硬한 論調를 보일 것이다)等 大部分이 實證된 셈이다. 假說(d)項의 對美態度에 있어서는 우리의 豫想에 전혀 어긋난 結果를 보였다. 卽 民主黨執權時期에 있어서는 4.19 革命때의 美國側態度에 對한 一般의 好感이 社說面에 反映된 것이 5.16以後에 比하여 훨씬 好意的인 것으로 기대했으나, 前記圖表에서 본바와 같이 分

析結果는 그 反對였다. 그와 같은 結果를 초래한 具體的인 原因에 대하여는 이미 第(7)項에서 言及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資料分析 結果에서 얻은 뚜렷한 結論이라기보다 前後事情을 참작해 얻은 推論에 不過從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가 本分析結果와 또 分析課程全體를 通하여 느끼는 것은, 첫째 韓國의 新聞들은 一般的으로 否定的인 方向으로 批判을 하면서도 역시 힘의 위압에 對하여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 위축을 면치 못했다는 것, 둘째 對以北關係, 對美關係, 對日關係等, 國家的인 重大問題에 있어서도 新聞社로서 確固하고 具體的인 主張과 研究가 엿보이지 않고 다분히 그때 그때의 政府態度와 社會的인 분위기에 따라 流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社說의 主題가 너무나 政·經에 치우친 나머지 오락, 觀光, 스포츠, 혹은 藝術等 文化一般에 대하여는 너무 疎忽히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勿論 新聞도 하나의 社會的인 存在物인 한 그 社會가 갖는 特殊性·與件과 制約에서 전혀 벗어날 수야 없는 일이겠지만,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그 큰 影響力과 指導的인 使命에 비추어 韓國新聞은 一舉手一投足에 좀더 깊은 責任을 느끼고, 切實한 解說, 分明한 立場, 그리고 具體的인 科學的인 論理를 展開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自己覺醒 아래에서만 一貫된 論調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指導的인 使命에도 副應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本分析에서 되도록 主觀과 先入見을 排除하려고 全力을 다했으나 뜻대로 되었던지는 疑問이다. 또 不足한 資料에서 結論을 얻으려 하고자 한 論理의 非難과 臆색한 合理化가 있었지는 않나 우려도 된다. 따라서 本分析을 하나의 徹底的인 研究業績으로서 堂堂히 提示하길 주저되는 바이나 적어도 初學者로써의 誠實性만은 갖고 임했다고 자부하며, 分析의 內容과 結果 그것보다도 內容分析을 熟達하는데 큰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